

“민주당 경선이 본선”... 총선 예비후보 경쟁 벌써 과열

광주·전남 예비후보들 공약보다 ‘특정 정치인 마케팅’ 집중
후보간 물밑 신경전... 문자 메시지 통해 여론조사 참여 호소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총선)를 앞두고 광주·전남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경선 경쟁이 벌써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의 후보들이 지역발전 정책이나 공약은 뒷전인 채 ‘특정 정치인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는 등 후보들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고, 문자 메시지와 음성 전화 등을 통해 여론조사 참여를 호소하는 경쟁이 어느 때 보다 심한 상황이다. 특히 시·군·구청들의 연말 송년 행사나 사람들이 운집하는 행사에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색 접퍼를 입은 출마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마저 있는 실정이다.

28일 지역정계에 따르면 지역 일부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해 오는 1월1일 발표할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대다수인 지역 특성상 경선 승리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사 지지율에 신경이 곤두서있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표심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예비후보들은 상대 후보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얻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여론조사가 시작되자 예비후보들은 “02 혹은 062로 오는 전화를 받아 저를 선택해주길 바란다”며 무차별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지역 조직을 총동원해 여론조사 응답에 나서는 등 여론조사 응답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예비후보들이 여론조사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려면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 되지 않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 중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문자 메시지라는 점에서 예비후보들은 문자 메시지 보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예비후보들이 ‘얼굴 알리기’ 경쟁에 나서

면서 각종 송년 행사를 치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종 구청 행사마다 예비후보들이 몰리면서 일부 구청에서는 ‘행사에서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은 후보자를 소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얼굴과 이름을 알리려 온 일부 예비후보들이 구청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의 경우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들이 출마 지역구를 정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면서 경선 경쟁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선거 1년 전 마무리됐어야 할 선거구 획정 문제로 일부 예비후보들은 ‘깜깜이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물밑의 후보 간 비방도 심화한 수준이다. 일부 후보는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 위원회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나기도 해 해명에 진땀을 빼는 등 향후 후보 적격 여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지역정계 관계자는 “광주·전남 민주당 경선은 다른 지역과 달리 본선보다 치열하다. 내년 총선도 경선 경쟁이 과격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여당일 당시 분당 사태 등으로 갈라섰던 이들이 다시 모이면서 지역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통 선거 출마자들은 오래전부터 지역 바닥 민심을 잡고 지역 공약을 내세운다. 하지만, 공약은 뒷전인 채 현역의원 교체론을 주장하며 특정 정치인에게 기대 마케팅만 하는 예비후보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는 각 정당과 정부, 선관위가 후보자의 경력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로서는 요원한 상태다”고 아쉬워 했다.

/김하나 기자 khn@kwangju.co.kr

19세 청년들에 문화향유 비용 15만원 지급

성년기 진입을 앞둔 19세 청년들에게 문화향유 비용 15만원이 지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세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공연과 전시 등 손수예를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를 1인당 최대 15만원씩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2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발표했다.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라는 비전으로 짜인 3대 혁신전략은 ▲ 예술인 지원 ▲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 문화예술 정책구조 혁신으로, 각 부문에서 총 10개 과제가 추진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굿바이 2023 ... 희망의 새해가 옵니다”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으로 일상을 되찾았지만 광주·전남은 역대 최악의 가뭄과 대우위니 개발 지역경제 위기에 이어,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고물가·고금리까지 겹치면서 힘든 한해를 견뎌내야 했다. 갑진년 ‘청룡’의 해인 2024년에는 푸른 청룡의 기운을 타고 광주의 신세계백화점 복합쇼핑몰 신축 사업과 인공지능·미래차 산업, 전남의 해상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미래 사업들이 희망차게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구례·곡성에 양수발전소 건설

구례군 문척면 일대 500MW 규모
곡성에도 국비 1조3000억 투입

구례와 곡성에 양수발전소가 건설된다. 구례군은 발전소가 건립되면 100여 명의 상주 인력 등 6000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는 또 한국수력원자력(경남 합천·영양), 한국중부발전(구례·봉화), 한국남동발전(금산) 등도 양수발전소 사업자로 선정했다. 산업부는 4개 발전사가 제출한 6개 양수발전소 사업 계획을 놓고 경제성, 기술 능력, 지역 수용성, 계통 여건 등을 기준으로 우선-예비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심사에서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부·2022~2036년)에 따른 필요 물량 1.75GW(기가와트) ±20% 범위에 포함된 사업자들이 우선 사업자로, 필요 물량 안에 들지 못한 사업자들

이 예비 사업자로 선정됐다. 우선 사업자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5년 3월까지 양수발전소를 건설하고 예비 사업자들은 11차 전기부(2024~2038년)에 반영된 데 따라 2035~2038년 순차적으로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수발전소는 심야 시간과 같이 전기가 남을 때 펌프를 가동해 물을 낮은 곳에서 산 중간에 설치된 저수지로 끌어올린 뒤 전기가 필요할 때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 전기를 생산하는 ‘천연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향후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살피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월 2일 새해 특집 32면 발행합니다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

*인삼 인삼 사보닌 A 함량 비교 **피부탄력도 +12.3%, 탄력 +10.2%, 주름 -25.9% 인체피부 실험 결과(49 후 사용 결과)(대상: 30~60세 31명) 시험기간: 2021년 03월 03일~2021년 05월 03일